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음 4월 2일) 제17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 대선 D-12 후보자들의 국방 공약은?

軍 처우 개선 · 방산비리 근절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방정책과 군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 공약이 눈에 띈다.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한 군대와 군 조직 개편을 통한 전투력 증강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방위산업비리 근절,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등을 국방개혁의 단초로 꼽았다.

인사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형 모병제'이다. 그러면서 기존 병력 중심의 선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산 비리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처벌영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급, 취사 등 비전분야를 민간에 전면 이양해 군대는 전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군수지원과 의료복지 등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현행 예편한 군 출신만 오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민간인이 앉을 수 있는 이른바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시했고,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 해체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군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비슷했다.

문 후보는 징병급여를 30%, 40%, 50%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월 50만원 선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유 후보도 역시 징병 급여를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의 약 5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의 경우 최저임금의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승격해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예비군 일일 훈련보상비도 5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 문제가 불거진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군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그린캠프를 통한 심리 상담 강화와 정신적 상해를 치유하는 '군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군인정년 연장과 계급별 정년 폐지를, 유 후보도 직업군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상해를 입은 장병이 민간병원에서라도 전액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대목 앞둔 카네이션 26일 오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온실에서 연구원들이 품평회에 전시 될 카네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560조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개막

혁신도시 신청사서 개청식... 제3의 금융중심지 도약 기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6일 전북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전북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광수·정운천·정동영·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진흥 정무부지사, 정호영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지역인사와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대학 총장,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하며 기금운용본부의 본격적인 전북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관련사진 2면> 560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

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1월 신사옥을 준공, 지난 2월말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번에 전북혁신도시에서의 첫 공식행사를 가졌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으로의 이점을 환영한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여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전북

지역에 GRDP 3,522억원, 부가가치 4,530억원, 소비 2,590억원, 투자 5,534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측되는 등 도내 경제, 관광, MICE 등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연착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동주택 특별분양, 취직세 감면 연장 지원, 임시주차장 마련, 익산역-혁신도시 간 교통수단 확충 등 다방면의 정주여건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군산조선소 폐쇄, 지역적 차별"

전북상협, 성명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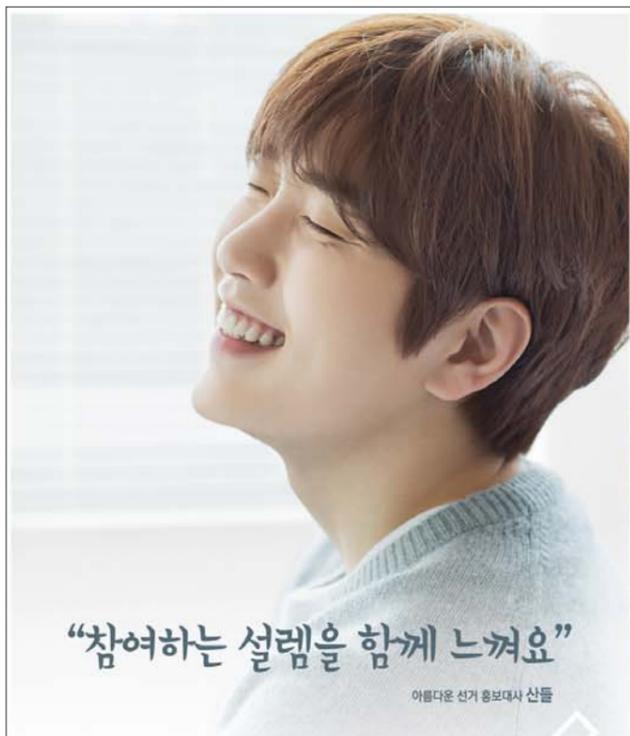
오는 5월 12일 군산조선소의 도크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현대중공업(주)의 분발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도민 서명운동, 현대중공업 분사 방안, 범도민 결의대회, 1인 시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북도 민들의 애절함을 강그러 짓밟아 버린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흔들리게 한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규모의 현대상선 10척의 선박 건조 물량을 배정하고, 2조 9,0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특혜를 주려는 반면, 불과 몇백 억원만 투입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군산조선소에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3면 - 성주골프장 사드 전격 배치... 시험가동 임박 / 12면 - '오늘 개최' 전주국제영화제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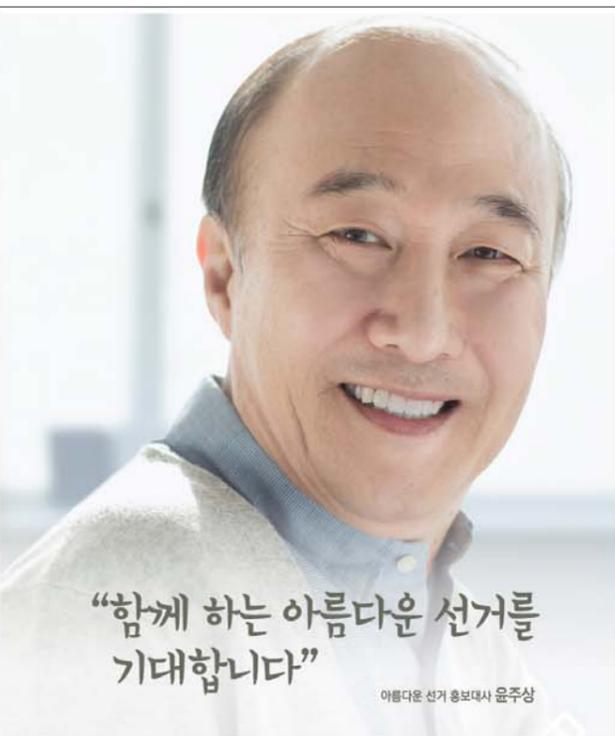
"참여하는 설렘을 함께 느껴요"

아름다운 선거 후보대사 산들



"투표에 희망을 담아 보세요"

아름다운 선거 후보대사 김연우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후보대사 윤주상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5월 4일(목) ~ 5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5월 9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